

AUTHOR 김재성 (Jae Sung Kim)

TITLE 요한 칼빈의 회심
(The Conversion of John Calvin)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0 no.1 (March, 1992):171-218

뉴잉글랜드에서는 교회 권징이 신실하게 실시되면서 율법폐지론자들과 퀘이커들의 과오를 들추어 내고, 그러한 이단 운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코튼은 주장하기를 교회의 모든 형제들은 교회 권징을 실시하므로 “그들의 여왕 같으며, 아내 같은 권세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⁷⁹⁾ 코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있게 집행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권징의 열쇠가 무시되지 않는다면 ... 우리의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한 아내, 여왕 같이 될 것이다.⁸⁰⁾

이와 같이 코튼은, 토마스 브라이트밴과 마틴 부처가 주장하였던 것 처럼, 교회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하므로 성도들이 다스릴 천년왕국인 하늘 나라의 잔치로 인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가 권징에 의하여 정화될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튼에게 권징의 바른 실시는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튼은 장로들에게 교회의 부패된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권징을 실시할 것을 권면하였고, 그 자신도 교회의 개혁과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하여 신실하게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였다.⁸¹⁾

79)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 p. 46.

80) *Ibid.*, p. 49.

81) 코튼은 1633년 뉴잉글랜드에 도착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보스톤교회의 교사로 봉직하였다. 1634년부터 1652년까지 목회하는 동안 코튼은 306명의 남자 신자와 343명의 여자 신자, 총 649명의 신자를 교회로 받아들였다. 이 수치는 매년 34명이 신자로 받아 들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7명이 각기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리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5명은 출교되었다. 교회 회중의 수를 생각할 때에 교회 권징이 철저하게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A. W. McClure. *The Life of John Cotton* (Boston: Massachusetts Sabbath School Society, 1846), p. 295를 보라.

요한 칼빈의 회심*

김재성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박사과정,
종교개혁사 전공>

회심은 기독교 신앙세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죄인이 자신의 인생방향을 돌이켜서 어떤 순간에 극적으로 회심하여 새사람이 되어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서서 빛의 세계로 전환하는 순간은 감동적이지 아닐 수 없다. 기독교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성도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 맹목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심으로 형성된, 영적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회심은 서구 유럽의 기독교 세계의 두 거장이자, 후대의 세대들이 모범으로 생각한 회심의 대표자들이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회심은 서구 기독교 2천년 역사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후대의 인물들이 그들의 회심을 본받아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돌아섰다.

회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의 편에서 무엇을 했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심으로써 과거의 생활과 사고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바울의 회심 기록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루어졌는데(사도행전 9장 1절-19절), 그 후로 일평생에 걸쳐서 그의 위대한 선교

* 이 글은 필자가 1990-91년도 미국 칼빈신학교 부설 칼빈연구소의 연구원(Research Fellow)으로 있는 동안에 연구비로 작성한 것이다.

사역과 성경 저술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를 이룩하게 된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의 전통적 규범에 어긋난다고 정죄하며, 그 검거에 앞장서 가다가 하나님의 간섭에 제지를 당하고 회심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이 태동하던 시대에도, 마치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교의 고질병처럼, 비슷한 양상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데 있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누누히 지적하였지만, 전통과 왜곡된 신학의 권위에 밀려서 구원신앙의 내용은 무시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후 이룩한 복음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듯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회심으로 인하여 기독교 역사의 본질적 대전환이 이룩된 것이다. 바울의 회심이 끼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칼빈의 회심도 그의 카톨릭 배경의 잘못을 깨고 종교개혁으로 나아감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기념비적 업적을 수립하게 되며, 잘못된 본질적 오류들을 시정하고 성경적 의식의 자각을 이룩한 것이다. 1520년대와 1530년대에 프랑스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였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카톨릭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잠진적으로 이룩된 어거스틴의 회심체험도 우리의 종교개혁자와 비슷한 대가 많다. 이교도적인 미신 숭배에서 벗어나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어거스틴의 고백과, 복음을 재발견하고 미신적인 중세 교회에서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칼빈의 신앙적인 순례가 그 정점의 도달하게 되는 데는 비슷한 대가 너무나 많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경험만으로 그칠 수 없다고 본다. 그가 소속된 단체나 조직에 공개적으로, 눈에 드러나보이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카톨릭의 교황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만약 하나님

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깨고 카톨릭이 주는 혜택과 위로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위대한 미래의 종교개혁자의 신앙적인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학자들이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이 회심이다. 우리는 그가 오를레앙에 두 번째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에 마틴 루터나, 쾰링글리의 개혁사상에 영향을 입게되었는지 알길이 없는 것이다. 그가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고백한 이 때의 연보를 정확히 남겨 놓았다면, 수 많은 학자들이 시간과 지면을 소비해 가며 그 뜻을 파헤치려고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회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서의 칼빈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회심의 사건은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¹⁾

먼저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칼빈 자신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근거로하여, 그의 회심의 시기, 특성, 내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장차 전개되는 신학적인 전개에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회심에 있었음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칼빈의 장차 이룩하게 될 종교개혁의 체계적 완성을 가져오게 되는 배경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특히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역사적 태동기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지평을 갖게할 것이다.

1)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10 : "대부분의 칼빈 학자들은 개신교로의 회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을 가볍게 취급해버릴 정도이다."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 107. p. Fredericksen, "Paul and Augustine : Conversion Narratives, Orthodox Traditions and the Retrospective Self",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37 (1986), pp. 3-34.

I. 1533년 파리

법학 공부를 마치고 파리로 다시 돌아간 칼빈은 새로운 분위기를 접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리에서는 이미 루터파를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그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상이나, 정통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감돌 정도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었다.²⁾ 특히 1528년에서 1532년까지 파리의 신학교수단은 국왕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파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들은 카톨릭교계에서 매우 명예롭고 귀족적인 신분으로 우대받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왕 헨리 8세가 캐터린과 이혼하고자 했을 때, 로마 교황이 불법이라고 취소를 선언하자 소르본느 교수진에게 자문을 청하여 유럽 대륙의 동조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당시 학자이던 베다는 15명의 동료 교수들을 설득하여 이혼을 정당화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였다. 외부의 위협에 좀처럼 움직이려하지 않던 교수단은 1530년 6월 7일 헨리 8세가 청원한 “자문”에 대하여, 앵글로-프랑스 동맹관계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는 교수진을 공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1532년 장 두벨레이(Jean du Bellay)가 파리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교수진을 공격해온 선봉장이었다. 또한 파리 의회와 교수진영 사이에도 차가운 관계였다.

2) F.M. Higman, *Censorship and the Sorbonne; A Bibliographical Study of Books in French Censured by the Faculty of Theology of the University of Paris, 1520-1551*(Geneva, 1979). Donald R. Kelley, *The Beginning of Ideology: Consciousness and Society in the French Re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10-128. J.H.M. Salmon, *Society and Crisis: Fr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5) p. 86.

이렇게 서로 얽히고 나뉘어진 가운데 프란시스 왕의 누이 나바르의 마가렛이 복음적인 방향으로 국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초청에 의해, 루브르 왕궁에서 프란시스 1세, 나바르의 공주, 그리고 많은 귀족들에게 복음주의를 설교하기 시작한 사람이 제라르 루셀(Gerard Russel)이었다. 이때가 바로 1533년이었다.³⁾

얼마되지 않은 사이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의 스타일과 설교의 이념을 본받아 모방하게 되었다. 매일 설교시간마다 루셀은 개혁주의자로서 분명하게 설교하였고, 또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소르본느의 교수진은 루셀의 영향력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1533년 3월 29일 그가 루터파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고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움직임이 약간의 성공을 거두면서 지성인들을 동조를 얻는데 효력을 발휘하자, 루셀에게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를 분명히 찾아내어 기소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려 파리 교구 사제단의 공인을 얻어냈다. 1533년 4월 경, 루셀의 설교는 일부의 고발자들에 의해 정밀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한편, 국왕 프란시스 1세는 루셀의 후견인인 나바르의 마가렛에 대해 이단적인 혐의가 있다는 경고에 접하게 되었다. 이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으므로 더욱 프란시스의 동정을 얻고 있던 때였다. 1533년 5월 13일 국왕은 교수평의회 의장 노엘 베다(혹은 베다에)에게, 루셀을 비난한 사람들은 파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여동생에 대한 동정심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교수단에 역정을 냈던 것이다. 노엘 베다는 5월 12일 국왕이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혹평을 퍼부었다. 교수 평의회 의장의 직책은 1520년 5월 5일 만들어진 것으로, 최고 선임 교수가 효과적으로 교무 처장 혹은 부학장의 책임을 바르게 담당하지 못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그때 베다가 이 직책의 요청을 받아서 효과

3) R.J. Knecht, *Francis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243.

적으로 교수회를 이끌어 오던 중 1533년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었다. 결국 파리교구의 주교의 조언에 따라 선포된 추방령에 의해 베다는 다른 몇 명의 교수들과 함께 파리를 떠나야만 되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게 되었다. 국왕이 신학 교수진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일격을 강타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자 교수진은 즉각 대응하였다. 1533년 10월에 마가렛이 그녀의 시집을 출판하였다. 신학교수단의 허가를 위해 한 부를 제출하는데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용하므로 국왕에 대해 보복의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생은 10월 1일에 공연된 나바르 대학연극에서 마가렛이, 성경읽기에 미쳐버린 주부로 그려짐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확증해 주었다.

칼빈은 이런 사태들을 1533년 10월 파리에서 친구 다니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었다. 특히 나바르 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연극과, 희곡 대본의 원작자를 색출하는 과정등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편지에는 파리의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전하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마가렛의 시집이 판금되고, 모든 책이 압수되는 소란스러움도 담겨있다.

...마가렛은 자신의 시집이 판금된 것을 동생 프란시스 왕에게 호소하자, 국왕은 편지로 파리 아카데미의 교수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았는지의 여부와, 불건전한 종교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발견되었느냐고 질문하였다.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견해에 대한 이유를 왕에게 제출했어야 했다. 이런 전반에 대해 의사 니콜라스 콥은, 현직 학장으로서, 문학, 의학, 철학, 신학의 4개 대학에 이 일을 알게 하였다. 첫 번째로 문학부의 교수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는 길고도 신랄한 화법으로 박사들에 대하여 통렬히 비난하였다. 왜냐면, 그들의 통치자인 마가렛 공주에 대한 경솔하고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다.

...학장은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진들에게 그의 지시사항을 보고하고, 세번째로는 교단의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교수들에게 했다...⁴⁾

4)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By Henry Beveridge and

이 편지 가운데 칼빈의 회심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시의 파리상황이다. 칼빈은 오를레앙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낳은 사건들로 이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나는 새로운 사실들을 모아서 너에게 보낸다. 너의 신실성과 책임감에 의해서, 내 손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달되길 원한다.” 여기에 칼빈은 “나는 우리들의 G의 두번 재 요약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다니엘은 오를레앙의 반 개혁주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이런 편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이 편지에 “G.”라고 암호처럼 요약된 단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가 G라는 사람과 자신과의 공통분모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동류의식이 있음을 짐작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놓았음이 명백해진다. “우리들의 G.”라고 했으니, 다니엘과 칼빈이 함께 속해있는 어떤 일파의 일원으로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였기에 칼빈이 그의 이름을 신비속에 감추어 놓고 말았을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약칭은 제라르 루셀 (Gerard Russel)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⁵⁾ 이름의 첫 자를 따서, 간추린 약자로 쓰는 것이 유럽의 풍습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었다. 루셀의 경우는 “제라르 선생”이라는 뜻하는 “Master Gerard”의 첫 글자를 따서, “M.G.”라고 썼을 것이 당연하다. 또한 다니엘 역시 칼빈과 마찬가지로 루셀의 동조자였다. 따라서 간단히 G.라고 쓰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충분히 누구인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개신교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이 때의 칼빈은 르페브르의 제자로서 온건한 개혁자였던 그의 견해에 칼빈은 적어도 상당히 동조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볼

Jules Bonnet(Grand Rapdis : Baker, 1858 rep.1983)vol. 4. p. 38.

5) A.Lang, K.Müller, E. Doumergue, A.Ganoczy, Dale Cooper, F.L.Battles 등.

수 있다.⁶⁾

이 편지를 통해서, 미래의 개혁자는 상당히 종교적인 진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칼빈은 이제 마가렛, 루셀, 콥의 그룹에 같은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파리의 신학교수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더 이상 소르본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II. 니콜라스 콥의 취임연설

신학교수들의 추방으로 공백이 생기자, 한동안 파리에서 개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소르본느의 새 학장에는 젊은 의사 니콜라스 콥이 임명되었다. 이것 또한 그 당시 대학사회를 강타한 일격이었다. 1533년 11월 1일, 새 학장은 관례에 따라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즈음하여 연설을 하였다.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든 역사적인 날도 이날이었다. 만성절(All Saints Day)은 매년 11월 1일 성자의 유품이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믿어지던 로마 카톨릭의 성일로서 미신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당시에는 여간 중요한 날이 아니었다. 로마 카톨릭의 미신숭배의 전통에 의해 생겨난 이 날은 특히 아픈 병자들이 이미 죽은 성자들의 유품이 있는 유명한 성당들을 찾아가면 병이 낫는 것으로 지켜져 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측은 성당의 주교와 지방 영주들이었다. 질병의 치유와 소원의 성취를 위해 거액을 기증하면, 성자의 유품을 가까이서 만지거나 대하고 돌아오는 것이

6) A.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Oxford : Basil Blackwell, 1990) 64. K. Müller, "Calvins Bekehrung" in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 zu Göttingen (Göttingen, 1905) p. 199. "칼빈의 오를레앙 친구들은 이런 약칭이 있을 때 그제 누구인가를 쉽게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같은 부류의 한 사람임을 인정하였다. 이들 친구들은 모두 르페브르의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다. 루터는 바로 그 전날 10월 31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빗텐부르크 대학교회의 게시판에 라틴어로 된 반박문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프레데릭 3세가 지어놓은 빗텐부르크 교회에는 유명한 성자들의 유품들이 있다는 소문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었다.

비록 루터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날 콥의 연설은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설교였다. 콥은 신학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글들을 인용하였다. 이날 연설 주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루셀의 설교를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고,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신학에서 변형시킨 것이자 또한 여전히 마리아 숭배의 카톨릭 전통을 담고 있었지만, 이 연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원리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는 단서를 제공할만한 강렬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나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잘못된 오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마음 속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무슨 예배며, 무슨 경건이며, 무슨 종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모든 의심을 떨어내기 위해서 화해와 칭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를 자신의 값어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교훈을 주장하였다. 바울은 시편으로부터 인용하기를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 4:7-8)고 하셨다."⁷⁾

7) "The Academic Discourse : Delivered by Nicolas Cop on Assuming the Rectorship of the University of Paris on 1 November 1533,"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Appendix III. tr. by F.L. Battles, (Grand Rapids : Eerdmans, 1986), pp. 368-9.

이 예상치 않은 내용의 연설로 인해 파리 사회의 권력층과 고위 성직자들이 문제를 삼고자 들고 일어났다. 나바르의 마가렛은 콥의 편을 들고자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11월 19일 후임자가 즉각 포르투갈 출신의 교수 구에비아(Andreas De Gouveia)로 교체되었고, 콥은 학장 취임 후 학교의 운영에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의회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받았다. 의학부와 문학부의 교수진은 그를 지지하고 있었으나, 법학부와 신학부의 교수진은 반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이 반반으로 대립적이었으므로 그의 위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콥은 운명의 날이 될지모르는 사태를 직감하고, 심문의 모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 길로 스위스 바젤로 도망을 가버렸다. 12월 13일 프란시스 왕은 리용에서 격노를 발하여, 파리에서 콥을 도망하도록 허용한 무능력한 의회간부를 체포하라고 공환을 보냈다. 의회는 그를 산채로든지 죽은 채로든지 체포하면 3백 크라운 현상금을 준다고 발표하였다.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로 견제되어, 신학부 교수진들의 시비와 비난으로 인해서 마침내 루셀과 다른 설교자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보수세력들은 국왕이 수도에 없는 기회를 타서 마음대로 개혁주의자들을 색출하며 신랄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 조사의 대상에는 칼빈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현재까지 이 취임강연의 전문으로 발견된 것은 2부이다. 한부는 칼빈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었는데, 그중에 몇 페이지가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현재 제네바에서 간수하고 있다. 다른 한부는 바르트 교수(P. Barth)와 니젤 교수(W. Niesel)가 편집한 칼빈전집(*Opera Selecta Calvinii*)에 들어있다. 이 두번째 복사본은 원래 어떤 16세기의 인사에 의해서 보관된 것으로, 많은 문법적인 미숙함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약간 수준이 낮은 복사본이다. 이 문서는 지금 스트라스부르그의 성 토마스 교회 고문서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

이 연설문은 과연 누가 쓴 것일까? 지금 남아있는 두 문서는

모두 잃어버린 원본의 복사본으로써, 라틴어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칼빈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 좀 더 나은 문서로 판명되었다. 칼빈 자신이 내가 그 연설문의 원저자라고 결정적으로 언급을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칼빈 학자들은 칼빈의 저작설을 전통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 이유는 칼빈의 생애를 기술한 베자가, "칼빈이 준비해 주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⁸⁾ 이 글을 영문으로 처음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깊게 분석한 배틀스 교수도 "칼빈의 저작설에 대한 베자의 언급을 증명할 만한 많은 유사점들이 훗날 칼빈의 저술 가운데 발견되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⁹⁾

칼빈을 원저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니콜라스 콥의 절친한 친구로서 파리 학창생활이 시작한 뒤로 이들 사이의 친분은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이들은 이때에 모두 파리에 있었다. 그러나 콥은 의학에 전문가이지, 신학에는 다소 길지 못하였다. 아마 칼빈

- 8) Theodore Beza, *Life of Calvin*,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ed. and tr. by Henry Beveridge vol. I, P. lxii; "칼빈이 니콜라스 콥으로 하여금 좀더 분명하고 순수하게 종교를 다루도록 연설문을 준비해주었다(furnished)" A. Lang, *Die Bekehrung Calvins* (Leipzig:1897) pp. 43ff. 같은 저자의 *Johannes Calvin* (Leipzig, 1909), p. 205. F.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p. 40 ff. Wilhelm H. Neuser, "Calvin's Conversion to Teschableness," *Calvin, and Christian Ethics* ed. by Peter De Klerk,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87) p. 58. T. H. S. Parker, *John Calvin* (Batavia: A Lion Paperback, 1975) p. 35. F. Wendel, *Calvin*, p. 40: "이 연설문은 오랫동안 칼빈의 작품으로 여겨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 칼빈은 적어도 1533년까지는 개혁사상에 확신을 가졌다."
- 9) Dale Cooper & Ford Lewis Battles이 최초 영문 번역에서 이 연설문의 저자를 칼빈으로 전제한 뒤, 모든 내용을 칼빈의 나중 글과 비교하고 있다. See, "Academic Discourse: John Calvin" *The Hartford Quarterly* IV (1965) pp. 76-85. F. L. Battles, "Introduction"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Grand Rapids: Eerdmans, 1986), p. xvii.

에게 지문을 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칼빈은 니콜라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견해들을 피력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또 한가지 칼빈 저작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칼빈이 이 원고의 한부를 어떤 연유에서 자기 손에 간직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¹⁰⁾ 어떤 관련이 있었기에 이 문서를 자신의 원고더미 속에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가 과연 초기 작성단계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원고의 일부가 칼빈의 손으로 직접 쓰여져서 은밀히 보관되어 온 것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설문은 적어도 칼빈의 마음속의 구축되어 가던 종교적인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시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더우기 이 폭발적인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 칼빈도 역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졌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의 책이며, 방과 모든 소지품도 샅샅이 조사하였다. 그도 하마트면 붙잡힐 뻔하였다. 칼빈이 박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섬세하고 조용한 성품에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나 짐작할 수 있다. 이 광분하는 소르본느 신학자들의 적대감과 체포령으로 인하여 칼빈의 마음은 확고하게 개혁운동에 가담하도록 밀어넣었다. 극도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그가 1531년 이래로 머물고 있던 포르테 대학의 기숙사를 몰래 빠져 나갔다.

칼빈은 1533년 11월 마지막 2주간의 어느날 정치도 없이 학문의 꿈을 불태우며, 어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파리를 떠나야만 하였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12월 말까지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것 같다. 곧 돌아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당시 파리의 긴박한 상황 때문이었다. 프란시스의 명령에 따라서, 당국의 루터파의 사상에 동조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검거에 나서서, 약 50여명을 체포하였다. 만일 칼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물어보나마나 루

10) T. H. L. Parker, John Calvin (Batavia, Illinois: Lion Publishing Cop. 1975) p. 30

터의 동조자로 몰려 이 숫자의 한사람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칼빈이 마치 포도농장의 과원지기처럼 변장을 하고 도망을 갔던 것이다. 위와같은 상황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칼빈이 이 연설문과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이 강력하게 뒷받침된다.¹¹⁾

뿐만 아니라, "전체 강연을 들으면 칼빈의 독창적인 저작임이 확실해 진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¹²⁾ 여기에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사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글의 내용에는 1533년 당시의 칼빈의 신앙과 신학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다. 물론 그의 최초의 저술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1532)에 비하면, 이 연설문의 문법이나 설득력은 현저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원고의 초안을 칼빈이 써 준 것이라면, 지금 칼빈이 가지고 있던 사본의 문법이나, 문장이 다소 완숙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문제삼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문체가 나중에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 채 3년이 못되어서 그는 기독교의 신학체계를 세우는 위대한 역작을 남기게 될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물론 칼빈이 이 연설문의 초안자라 하더라도 회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될 뿐이다.

칼빈의 저작설의 결정적인 연구는 스트라스부르그의 역사가 장 로트(Jean Rott) 박사의 면밀한 발견에 의해서 새로운 옹호를 받게 되었다. 로트의 연구로 인하여 칼빈의 저작설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이 해소되었으며, 이젠 더 이상의 뚜렷한 반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¹³⁾ 장 로트 박사에 의하면, 지금 스트라스부르그에

11) A.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p. 66.

12) J. Vienot, Histoire de la Reforme francaise, vol. 1, p. 117.

13) Jean Rott, "Documents Strasbourgeois concernant Calvin,"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44(1964), pp. 477-500. 로트의 연구는 대표적인 칼빈 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Cf. Richard Stauffer, "Calvin," in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15, ed. by Menna Prestwich (Oxford: Clarendon Press, 1985), p. 18.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p. 66.

보관중인 콕의 연설문은 필체를 감정해 본 결과 콕의 친필로 짐작된다고 한다. 로트는 1534년 4월 5일자로된 콕이 부서에게 보낸 편지의 필체와 똑같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편지가 진본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로는 연설문이 기록되어 있는 용지가 라인강 북쪽 지방에서 발견되는 종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콕이 1534년 망명중에 있을 동안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트 박사는 고문서 도서관에서 1539년 11월 9일자로된 독일의 휴머니스트 미코니우스(Myconius)가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였는데, 스트라스부르에 보존돼 있는 연설문의 용지의 3, 4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종이의 현저히 눈에 띄는 무늬와 꼭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두번째, 현재 남아있는 두 문서들의 차이점을 비교한 결과, 두가지 모두 잃어버린 진본의 복사본들이라는 것이다. 칼빈이 간직하고 있는 제네바 문서가 좀더 나은 사본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칼빈이 이 연설문의 실제적인 원저자라는 확신이, 아직도 그 확실성에 대한 다소의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유효한 것이다.

니콜라스 콕의 연설문 사건은 칼빈이 회심에 가장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을 연상케 한다. 비록 문화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칼빈은 새로운 복음의 음성을 듣고 전파함으로써, 인생의 진로를 바꾸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리를 떠난 망명객은 앙굴렘(Angoulême)에서 신학자로 다시 태어난다. 신학부를 다녀 본 일이 없던 그가, 마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하여 체계화 하듯이, 종교개혁 신학의 체계적인 집대성으로 기독교강요(*Christianae Religio Institutio*)를 쓰게 되는 것이다. 그는 친구 루이 두 띵에(Louis du Tillet)의 집에 4, 5개월 머물면서 그 집안의 수준 높은 도서관에 묻혀서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참된 지식의 저술을 준비한다. 그가 당했던 파리에서의 충격과 불안과 대립은 이제

개혁사상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 속에서 심화되어 진다.

휴머니스트에서 종교개혁자로 전환점에 있어서, 그의 종교적인 변화의 형성에 관해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어떤 시점에서 칼빈은 온건한 르페브르의 신봉자라는 위치를 벗어나서, 보다 급진적으로 카톨릭을 떠날 계획을 수용하게 되었을까? 어떤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정들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그의 회심을 설명해 주는 그의 저술로 돌아가 봐야한다.

Ⅲ “갑작스런 회심”(Subita Conversio)

로마 카톨릭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품어오다가, 개신교로 돌아선 것이 마치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것과 같이 회심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다소 의아심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에서 첫번째 회심자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회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개종한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 후에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도 회심한 뒤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신 인물들이 되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가 “갑작스런 회심”이었다.¹⁴⁾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에서 본질적으로 삶의 전 생활자세를 바꾸게 만들었고,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설파하도록 만들어졌다. 자신의 정체성이 뒤바뀐 근본적인 변화였다. 바울은 이 회심 후에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저술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다. 예수

14) Alan F. Segal, Paul the Convert ; The Apostolate and Apostasy of Saul the Pharisee(New Heaven : Yale University, 1990) p. 3.

님도 가르침 이외에 인간적인 모습을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내 보이셨듯이, 바울도 그러하였다.

바울의 회심이 당시의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동일한 신앙 안에서 단순히 종파를 바꾸는 정도를 의미하였던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군대를 동원하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칼빈의 회심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중세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하며 약 천년동안 서구 유럽을 휩쓸고 있었다. 아직 로마 카톨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던 프랑스 파리에서 개혁신앙을 가친다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 없는 모험이었다. 16세기의 개신교는 목숨을 바쳐야만 할 박해 속에서 신앙을 형성해 나가며, 전파되었다. 로마 교회에서 돌아서는 것은 단지 한 종교내에서 강조점이 약간 다른 어떤 종파로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로 한 중대한 결단이었다. 이러한 신앙은 복음의 진수에 대한 절대확신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가) 칼빈 자신의 증언들

칼빈의 회심은 우선 앞에서 살펴본 시대적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무르익어 갔다. 자신의 표현을 살펴볼 때 그 내용과 성격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을 그 어느 곳에도 남겨놓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더하게 만든다. 회심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다음에 시편 주석(1557)을 쓰면서 서문에 잠깐 자서전적인 언급을 남겼다. 여기서 그는 가장 자서전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갑작스런 회심”(Subita conversio)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설명이 없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신학을 공부하도록 계획하셨었다. 그러나 그가 법학을 전공한 직업이 실제에 있어서 어디서나 매우 부유하다는 생각을 한 끝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철학 공부로부터 떠나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내 아버지께 대해서 순종하려는 소망에서였지만, 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공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밀하신 섭리로 나를 제 어하시, 마침내 내 진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다. 첫째로 일어난 일은, 갑작스런 회심으로 여러해 동안 너무나 고집스러웠던 마음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철저히 교황의 미신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렁같은 구렁텅이로부터 쉽게 구출될 수 없었다. 유년기의 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훨씬 완고하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참된 경건의 지식에 대해 약간의 맛을 본 후에, 나는 즉시 그 안으로 진보하려는 매우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비록 내가 다른 학문으로부터 모두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하는 열성은 아주 적었다.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참된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게 와서, 나도 아직 신참자요 초보자인데, 나에게 배우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다. 내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기 위해 나는 아무도 모르는 숨을 곳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다소 수줍어하고, 겁이 많아서 항상 조용한 것과 평온함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이 염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내게 있어서 모든 휴식과 휴양의 장소는 공적인 학교들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휴식하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명을 받는 곳으로 끌어 내시어,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하는 무대위에 밀어 넣으셨다. 사실 내가 프랑스를 떠나서 독일로 갔을 때, 내가 항상 간절히 바래오던 것처럼, 그전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지 않은 구석진 곳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다.¹⁵⁾

위의 내용을 좀더 분석해 보자. 칼빈은 자신이 종교개혁자로 발전하기 이전에, “너무나 철저히 교황의 미신에 빠져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 설명하였다. 그 자신은 ‘진흙과

15) 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 by James Anderson, pp. xl-xli.

같은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다. 거기서 자유로이 되기란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영적인 수렁을 의미하며, "교황의 미신"이란 말은, 종교의 오류라기 보다는 거짓 종교라고 본다. 그는 자신이 이런데서 빠져 나오려는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지난 날의 상황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가 중세 말기의 왜곡된 종교의 수렁으로부터 빠져 나와서 자유로이 될 수 없었으므로, 외부로부터 오는 간섭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타고 가는 말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마침내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신 섭리 가운데 나의 진로를 바꾸어 놓으셨다."¹⁶ 칼빈은 자신의 회심이 하나님의 섭리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 믿고 있다.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만남의 결과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완강한 고집이 꺾였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과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일이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셔서, 초자연적으로 자신의 심령을 바꿔 놓으신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적어도 휴머니즘을 따르는 선까지는 교회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회심이 일어나고 난 후로부터는 공개적으로 종교개혁의 선봉에서

16) T. H. L. Parker, John Calvin, p. 163. 파커 교수는 "Subita"는 "Sudden" (갑작스런)이라기 보다는 "Unexpected" (예상치 않은)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해석에 의하면, 칼빈의 회심은 일시에 예기치 못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요즈음 우리들은 주로 요한 웨슬레의 극적인 회심의 경우와 같이, 일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예상밖의 일대 방향전환의 대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회심이라는 낱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이런 의미로만 사용한다. 그러나 회심이란 항상 갑작스런 사건이 될 필요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학자들 중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요한 칼빈의 회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P. Sprenger, W. Neuser, A. Ganoczy, R. Wallace, A. McGrath, R. Gamble 등.

서 모든 사람을 이끄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칼빈이 1539년에 쓴 야고보 샤돌렛에게 보낸 답변서(Reply to Jacopo Sadolet)를 보면, 그의 생애에 관한 언급 가운데 로마교회에서 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고민하며, 개혁사상을 받아들이기를 고민했던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쳤다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그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이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법학도이자 변호사로서 그는 확실하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서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질서를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최고의 권위와 절대적인 객관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명백한 기록으로서 성경을 발견한 것이다. 그가 헬라이어와 히브리어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 섰고, 비로소 로마교회 권위보다 위대하며, 오래된 전통이나 그 안에서 시행해 오던 구습들을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권위있는 해석자임을 받아들게 된 것이다.

"갑작스런 회심"을 초래한 중요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다보면, 성경의 중요성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직접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의 회심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으며, 이는 그의 신학의 핵심처럼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주어졌다. 성경의 절대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놀라운 확신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는 다른 어떤 개혁 사상가들보다 칼빈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다.¹⁷

야고보 샤돌렛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그는 개혁의 원리를 뛰어

17) Cf.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 Baker, 1960), pp. 35-51. Donald K. McKim, "Calvin's View of Scripture,"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 Baker, 1984), pp. 43-68.

난 필치로 변호하였다. 그의 영적인 진지함과 진실성은 모두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에서 우리나라 놀라운 내용임을 의심할 수 없다. 여기서 그는 얼마나 이성적으로 신중히 판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진리란 없음”을 확신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뛰어난 이 글의 결론부분을 직접 검토해 보자.

그들은 나를 두가지로. 이단이요, 분파주의자-증죄를 지었다고 고소하였다. 이단이란 그들이 받아들이는 교리들을 내가 감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우리의 영혼이 직접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점화되어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진리란 없다.

… 내가 나 스스로 좀더 살펴볼수록,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절망을 받았으며, 따라서 나에게 남아있는 오직 유일한 위로는 망각으로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다. 여전히,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전혀 새로운 교리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나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방식대로 계속해 나갔었다. 이 새로운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머리로 돌아오게 하여, 쓸데없는 것은 벗겨버리고, 그 본래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다. 나는 고상하다는 것에 잠식당하여, 듣지 않으려는 귀를 갖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거부했었음을 고백한다. 왜냐면, 내가 나의 오랜 생애동안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하도록 권유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내게는 엄청난 어려움이였다. 특히, 나로 하여금 그 새로운 선생들을 반대하도록 만든 한가지는,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귀를 열고, 스스로를 가르침 받도록 허용한 뒤에는 교회의 위대함에 손상을 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왜냐면, 그들은(개혁사상가들) 나로 하여금 교회로부터의 분열과 교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¹⁸⁾

18)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vol. I, p. 62. Cf. F. Busser, Calvin's Urteil über sich selbst, (Zurich, 1950), pp. 26ff.

앞서 살펴본 시편 주석 서문에 보다는 18년이나 먼저 쓰여진 위의 답변서는 칼빈의 회심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처음에 개혁사상을 “듣지 않으려”하다가 “회심”했으며, “열정적이고도 격렬하게” 새로운 가르침에 거부하였음을 고백하였다. 왜냐면 과거의 오류를 용납하기가 “엄청나게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¹⁹⁾ 그러나 그는 이런 지성적인 고뇌를 뛰어넘고 “회심”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으로는 불가능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간섭하심”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압도적이고 강한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건어가 버렸다. 샤들렛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그의 죄의식에 대한 증세 로마교회의 구원관과 잘못된 신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알게되므로 무거운 짐을 내던져 버리고 해방을 얻은 자의 기쁨이 담겨있다. 이것이 그가 “회심”이라고 부른 자신의 내적인 경험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부분이다. 샤들렛은 칼빈의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거짓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분명하게 칼빈의 개혁사상과의 결합의 동기가 오류임을 지적하려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답하면서 1539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적인 편력을 돌아보면서 회심의 동기를 비추어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루터의 회심과 매우 유사한 일면이 있다.²⁰⁾ 어거스틴의 회심이야말로 더욱 그러하다.²¹⁾

칼빈이 개신교들의 토론을 일찍부터 접했다는 흔적은 다음의

19)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John T. McNeil,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p. 109ff.를 볼 것.

20) W. Walker, John Calvin, p. 76.

21) Heiko A. Oberman, Luther; Man between God and the Devil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 151f.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경에 의해서였다. 성경이 단지 신학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확고한 기준으로 인식되어진 후에 이루어졌다. 1545년에 쓴 Ruckblick(회상록)에서, 1518년 혹은 1519년에 일어난 자서전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롬 1:17절의 말씀이 자신의 거침들을 제거해 주는 핵심성경 구절이었음을 고백하였다.

웨스트팔에게 보내는 두번째 답변(1556년)의 몇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 전통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던 그를 움직여서 역사의 새로운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설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교황의 어둠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을 때, 바른 교리에 대한 아주 적지않은 맛을 본적이 있었다. 나는 루터의 책에서 오클람파다우스나 쾰링글리에 의한 성례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읽고, 공허하고 그저 이름뿐인 그들의 모습을 간직해 왔다. 내가 오랫동안 그들의 저술을 읽지않은 채로 지내면서, 그들의 책에서 외면해 버렸음을 고백한다. 그런 후에,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말부르크에서 모여 토론하는 가운데, 전에 격렬하게 다툰 것들을 조절하였다. 따라서 루터의 안개가 다소 풀어져 버렸다. 아직 완전히 청명한 날씨는 아니었지만.²²⁾

칼빈은 1529년 10월에 있었던 말부르크 토론이 있기전에, 성찬에 관한 루터의 해석을 먼저 접할 기회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개혁자들의 사상을 진지하게 읽고 생각할 마음이 없이 지냈었다.

22) Roy W. Battenhouse, "The Life of St. Augustine," in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ed. By Roy W. Battenhouse (Grand Rapids : Baker, 1979, reprinted) p.35. 어거스틴의 회심도 매우 “하기싫은”(unwilling)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의한 방향전환이었다. 폰티타타누스의 설명을 통해 성자들의 거룩한 생활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암브로스가 쓴 독신생활과 수도원에서 헌신하는 생활을 처음으로 알게되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지난날 맹세의 기도들을 생각해내곤, 거룩한 생활에 얼마나 자신이 빚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심각한 회오의 눈물을 뿌렸다. 집으로 돌아와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들의 경건성에 비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수치심의 눈물을 흘리는 중에, 옆 집 아이의 계속 반복되는 노래를 듣는다. "Tolle lege!" 그래서 그는 급히 자신의 성경을 찾았고, 롬 13:13이 이미 펼쳐져있었다. 그리하여 생명의 빛이 그의 가슴에 비취었다. 모든 의심은 사라져버렸다.

나) 회심의 시기

그러면 이제부터 매우 의미있고 무게있는 의문들에 대해 답해야 할 차례이다. 언제 어디서 칼빈의 이러한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나? 혁명가적인 기질이 힘을 발휘하게 하였다는 말인가? 용기가 없어서 수줍어 하던 그에게 갑작스런 힘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지적인 다양성을 도구로하여 발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칼빈의 친구들과 오래된 전기 작가들, 즉 베자나 폴라동에 의하면, 칼빈의 개신교로의 전환이 그의 사촌 로베르 올리베탕(Pierre Robert Olivetan)의 영향을 입어서, 1528년 초 오를레앙 법대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히 이미 발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²³⁾ 신학 대신에 법학을 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올리베탕의 영향으로 젊은 칼빈은 성경을 원어공부에 열심을 다하였으며, 종교개혁에 열렬한 동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설교까지 했고, 파리에서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1532)을 쓰고, 그곳에 모인 개혁사상가들과 교류를 돈독히 하였다는 해석이다.

23) Beza, Life of John Calvin, pp.lx. “베에르 로베르 올리베탕은 (이 사람에게 프랑스 교회가 구약성경의 프랑스어 번역판을 빚지고 있는데, 뉴스텔에서(Neufchatel) 출판되었다. 그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데 몰두하여 모든 종류의 미신으로 부터 혐오감을 느껴, 교회의 공식예배의 출석을 중단하였다.” 베자가 쓴 칼빈 전기에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후대의 학자들마저 혼란을 일으키곤 하는데 다음 문장이 바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하여왔다. p.xxiv. “관례에 따라 니콜라스 쿵은 11월 1일, 교왕을 따르는 자들이 지키는 만성절에 취임연설을 하게 되었다. 칼빈이 그에게 준비해준 것에는 종교에 대해서인데, 전에 부터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좀더 준수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을 담고 있었다.”

1554년에 영어로 번역된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시대에서 헨리(Paul Henry)는 칼빈의 회심을 루터와 어거스틴에 비교하였다. “루터의 회심을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다. 번개가 바로 옆에 있던 친구 알렉시우스(Alexius)를 때렸을 때, 다른 아무것도 끔찍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고, 수도사가 되었다. 어거스틴의 경우도 “혼자서 약 6년여에 걸친 갈등을 견뎌내야 되었다.”²⁴⁾ 칼빈의 회심은 “일찌기 일어났는데(early conversion)”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는 기본원리를 터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칼빈의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출발에 대해 고전적인 학설을 뒤엎는 글을 맨 먼저 발표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 역사가였던 플로리몽드 드 레이몽드(Florimond de Raemond)이었다.²⁵⁾ 그는 칼빈의 “이단적”인 사상은 부르지 대학에서 볼마르에게 신약 원어인 헬라어를 공부하면서부터 라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많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학자들은 볼마르가 칼빈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쳤다고 강력하게 증거들을 제시하였으니 종교개혁사를 저술한 다빈느(Merle d'Aubigne)도 같은 견해로 칼빈의 생애를 분석하였다.²⁶⁾

독일의 카톨릭 사학자 캄프슐트(Friedrich Wilhelm Kampschulte)는 이런 “전통적인 학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24) Paul Henry, *Life and Times of John Calvin: The Great Reformer* tr. by Henry Stebbing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54) p.31.

25) Florimond de Raemond, *La Naissance, progrès et décadence de l'herésie* (Paris: 1605), p.882. 저자는 1601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의 회심에 대해 태어난 프랑스보다 독일에서 연구에 몰두하여 소위 칼빈의 “이단적인 요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찾아내려 하였다.

26) 왜냐면 기본적으로 베자의 “칼빈의 일생”에 나오는 암시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cf.

“1532년 후반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²⁷⁾ 한걸음 더 나아가 화란의 피어슨(Allard Pierson)은 칼빈이 니콜라스 콕의 연설문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535년 8월 23일 기독교감오의 서문이 쓰여질 때까지는 개혁사상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과격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보다 팔목할만한 연구는 파리의 프랑스 대학 교수로 있던 르프랑(Abel Lefranc)에 의해서다. 그는 칼빈의 가정과 주변 인물들과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주어 칼빈의 “점진적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의 의지로 로마 카톨릭을 떠나 개신교의 교리교진리임을 확신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²⁸⁾ 칼빈의 아버지가 노년에 파문당하였고, 형마저 노농의 주교단과 불화 끝에 정죄를 받았으니 가정적에서 이미 로마 카톨릭의 폐습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1528년부터는 올리베망의 영향을 받게 되어 더욱 개신교의 신학에 동조하게 되었고, 법학수업 기간에 완숙한 교리의 경지로 점점 나아갔으며, “결정적 일격”을 콕의 연설문에 넣음으로써 회심이 완결된 것이라고 보았다.

1890년, 당시로서는 젊은 학자였던 스위스의 앙리 르폴트(Henri Lecoulte)는 르프랑의 연구를 반박하면서, “1534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²⁹⁾ 물론 칼빈

27) F.W.Kampschulte, *Johann Calvin*, i. pp.233-241. Stickleberger는, “캄프슐트는 “칼빈을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Calvin A Life tr. by David Georg Gelz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54) p.17. McNeil에 의하면, 칼빈의 약점을 캄프슐트의 전기는 칼빈을 비난하기 위한 저술이며, Doumergue나 Stickleberger 같은 학자들이 쓴 전기는 바로 이런 약점에서 칼빈의 입장을 변호하고, 역사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도된 저술들이다. See J.T.McNeil, “Fifty Years of Calvin Study,” in W.Walker, *John Calvin*, p.xx.

28) A.Lefranc, *La Jeunesse de Calvin*, (Paris: 1888), pp.97-99.

29) Henri Lecoulte,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Lausanne: 1890), pp.27-28.

이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점은 르프랑과 일치했다. 이에 동조하는 스티헬린(Rudolf Stähelin)은 칼빈의 1533년 10월 27일자 편지가 암시하듯이, 1534년 정월까지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고 했다.

1897년 독일 할레대학의 랑(August Lang)은 앞선 연구들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1533년 후반이 가장 신빙할만하다”고 말하고,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의 저자가 칼빈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한 어조로 변호하였다.³⁰⁾ 칼빈은 항상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약간의 귀뜸이나 가족적인 사건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회심할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한 점을 중시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직접 칼빈에게 말씀하심으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빈이 휴머니스트로서 성경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칼빈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가장 권위있는 전기로 손꼽는 두메르그(Ernst Doumergue)의 기념비적인 칼빈전기는 오늘날 까지도 매우 높은 학문적인 가치를 지닌 저술이다. 그는 베자와 콜라동의 글에 높은 권위를 부여하면서, 칼빈의 복음적인 첫 시발은 1528년 올리베땅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전연구를 위해 볼마르에게 헬라어를 배운 것이 더욱 성경학습의 기회를 주게 되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첨가하면서,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이 교부들과 성경을 인용한 것은 종교적인 관심을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에게서 성경을 빌려본 일도 이를 반증하는 자료라고 했다. 물론 두메르그도 칼빈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르페르브를 따르는 한 사람의 휴머니스트가 되었다가, 1532년에는 완전한 개신교도로 나아가게

30) August Lang, Die Bekerung Johannes Calvins, (Leipzig : 1897), p. 49.

된 것으로 보았다.³¹⁾

튀빙겐의 뮐러 교수는 칼빈이 올리베땅의 영향을 직접받았고, 오를레앙에서 르페르브의 복음적인 그룹에 가담하게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회심”은 1533년 8월 23일 노용의 예배 석상에 칼빈의 모습이 보였다는 점을 중요시 하면서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해석 하였다. 그는 칼빈의 의지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기로 인제 작성하였느냐가 제일 핵심요소라고 보았다.³²⁾

유명한 교회사가이자 칼빈 전기 작가인 윌러스톤 워커는 1532년의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주석의 서문을 중요시 하면서, 아직 독자들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회심을 언급하지 않음을 보아서, 1532년 후반과 1533년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칼빈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니콜라스 콥의 사건을 통해서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533년 여름과 가을의 파리 상황을 루셀의 설교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흡수하기에 매우 무르익은 때였다.³³⁾

워커의 칼빈 전기이후로 1533년에 칼빈의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학설이 정설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1932년에 영어로 번역된 전기에서 모로와 루벳은 “칼빈의 회심이 1533년 9월 드 라 포지

31)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Lausanne, 1899-1927), Vol 1, p.72. 이 책은 단순히 칼빈의 생애만을 다룬 전기가 아니라, 칼빈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수많은 전기작가들의 이견과 끝없는 논쟁점들을 성실하게 연구한 가장 권위있는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칼빈은 두메르그의 영웅이었다. 전기작가의 정열을 불태우며 모든 장황스런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칼빈을 대할 수 있도록 뛰어난 저술을 이룩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이 기념비적인 작업이 늦어졌지만, Vol. VI에서 그는 세르베투스와의 관계된 일을 300페이지에 걸쳐 파헤쳤다. 마지막 Vol. VII에서는 칼빈이 유럽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32) K. Müller, “Calvins Bekehrung,” pp.188-255.

33) W. Walker, John Calvin :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ew York : Schocken Books, 1906, rep. 1969) p. 97.

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³⁴⁾ 영국 에딘버러의 교회사 교수였던 매키논은 “1533년 가을에 니콜라스의 연설문 사건으로 칼빈의 회심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서 복음주의적인 생애를 살도록 결정되었다”고 한다.³⁵⁾

미국의 저명한 칼빈연구가인 맥네일(John T. McNeill) 교수는 칼빈이 1533년에 새로운 사상으로 접어들었으며, 1534년에 완전히 개신교로 전환하였다고 해석하였다.³⁶⁾ 칼빈 당대의 베자나 플라동의 전기를 뒤엎기 위해 맥네일이 제시하는 근거로는, 시편 주석 서문에서 사용하는 “갑작스런”이라는 라틴어 단어 *subita*는 프랑스어 *subite*이 아니라(*subeo*의 과거분사) 따라서 “회심을 경험함으로써”(by a conversion undergone)라고 풀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 회심의 시기를 찾는데 있어서 이런 언어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학자는 스프렌거였다. 칼빈이 자신의 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심”(conversio), “가르치기 쉬움”(docilitas), “미신”(superstitio) 등의 용어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³⁷⁾ 그는 니콜라스 콕의 연설문의 진정한 저자는 칼빈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문구에 칼빈 특유의 설득력이 돋보이지 않는 점과 당시 학식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무책임하게 남의 글을 쓴다는 일이 용납하기에 부자연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칼빈의 연구에 교과서적인 저술을 펴낸 웬델(Francois Wendel)은 “칼빈의 회심은 1532년 이후로 일어났다”고 앞서 나온 전기들을 평가하였다.³⁸⁾ 그밖에도 엘스(H. Ellis)는 “마틴 부서가 칼빈의 회심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³⁹⁾ 근래에 들어서는 두메르그의 초기 회심설에 동조하는 학자라곤 스틱켈버거 밖에는 없다.⁴⁰⁾

지금까지의 칼빈 회심에 관한 연구를 살펴가면서,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의 회심연대를 1528년으로 고집하려 한다. 가능하면 베자의

34) Jean Moura & Paul Louvet, Calvin : A Modern Biography tr. by Ida Zeitlin (New York : Doubleday, Doran and Company, Inc., 1932) p.67.
 35) James Mackinnon, Calvin and The Reformation(London : Longman, Green and Co., 1936), p.43, 매키논은 매우 냉담한 태도로 칼빈의 전기를 저술하였다. 그의 유명한 책은 모두 4권으로 된 Luther and the Reformation이 있다.
 36) J.T.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fo Calvin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110.
 37) Paul Sprenger, Das Ratsel um die Bekehrung Calvins, Beitrage zur Geschichte und Lehre der Reformierten Kirche, 11 (Neukirchen Kreis Moers : Neukirchener Verlag der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s, 1960), pp. 56-98. 스프렌거는 칼빈이 약 100여 차례나 신앙성경 주석에서 사용한 라틴어 docilitas, docilis(teachaleness)의 의미를 전체 저술의 맥락에서 풀이하려고 했다. 칼빈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의 전환”(conversion to teachableness)이라는 말을 그토록 자주 사용했으며, 다음의 예들을 신앙성경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석하였다. 요한

과 야고보, (마 4:22) 베드로와 안드레(요 1:38), 나다나엘(요 1:46), 젊은 부자 청년(마 19:16-22), 삭개오(눅 19:5-6), 한 서기관(마 12:32-33), 사마리아 여인(요 4:19), 날 때부터 소경이던 사람(요 9:36),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행 2:37), 에디오피아 내시(행 8:31), 바울(행 9:5), 백부장 고넬료(행 10:9), 리디아(행 16:14), 빌립보 감옥의 간수(행 16:29),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행 17:4), 아텐의 유대인들(행 17:17)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음”이라는 첫 단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점차 배우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아직 약하고 부족 한 상태이며, 진정한 신앙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본다.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입문단계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신앙의 준비(preparatio fidei), 신앙의 시작(fidei principium), 아직 완전한 신앙의 단계는 아닌 것을 의미한다(pura fide nondum imbutus).

38) F.Wendel, Calvin, p.37. 다른 학자들의 학설을 잘 평가하고 있는 p.39 n71을 보라.
 39) Hastings Eells, “Martin Bucer and the Conversion of John Calvin,” in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XX(1924), pp.402-419.
 40) Emanuel Stickelberger, Calvin, A Life tr. by David Gregory Gelzer(Richmond : John Knox Press, 1954) p.16.

글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⁴¹⁾ 이들은 대체로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칼빈이 쓴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로마 카톨릭 역사가들은 칼빈의 회심연대를 1534년으로 생각하며, 가급적 뒤로 늦추려고 한다.⁴²⁾ 심지어 가톨릭 교수같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는 칼빈이 기독교강요의 초판(1536년) 출판한 후, 1539년에 가서야 완전히 루터의 신학에 담긴 개혁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³⁾ 물론 이들은 콥의 확장취임 연설문의 저자도 칼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칼빈은 1536년 이전에 이미 개종하였으며, 성경의 입문서로 쓴 기독교강요를 저술하기 전에는 벌써 개혁사상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다) 회심의 특성: 점진적이냐 순간적이냐?

1960년대 이후의 연구는 회심이 점진적이냐(gradual) 혹은 일순간이냐(sudden)의 논쟁으로 바뀌게 된다. 어차피 정확한 연대의 설정이 매우 막연하고, 각기 다른 칼빈의 글들에서 회심

의 암시가 나타남에 따라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어졌다. 맥네일이 생각하는 칼빈의 회심은 “생각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였다.⁴⁴⁾ 역시 스프렌거도 칼빈의 ‘갑작스런 회심’은 어느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527-8년 사이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 카톨릭 신학자 가녹지(A. Ganoczy) 교수도, 그의 출발의도는 개신교 신학자와 다르지만, 점진적으로 나날이 그의 신앙이 참된 내용으로 바뀌어졌다고 주장하였다.⁴⁵⁾ 초기 저술로부터, 회심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부분들을 살펴본 끝에 칼빈의 예레미야 주석(1563)을 한 절 인용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펠라기안을 반대하여, 받아들인 견해이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나, 기도로 회심되어진게 아님을 증명하였다.” 이 구절이 칼빈의 회심에 대한 생각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월레스(Ronald S. Wallace)는 1533년 11월과 1534년 노용 방문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있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였다. 그는 올리베땅의 영향을 입었고, 적어도 루터의 저술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말부르그의 대화에 대한 보고서를 흥미있게 읽었다. 개신교도들이 순교에 처해지던 파리 에 있었으며, 한번은 그렇게 처형을 당한 사람-에틴느 드 라 포지-의 집에 머무르기도 했었다. 점진적으로 형성된 이런 상황속에서 눈사태가 준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그리고 급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⁴⁶⁾

41) 위의 주 22번을 볼 것. Q. Breen, John Calvin : A Study of French Humanism(Grand Rapids : Eerdmans, 1931), p.146 : “It is remarkable that Calvin was converted to radical Protestantism rather late in life. He had been almost entirely committed to the humanistic ideal until his twenty-fourth year. As a rule young people experience their change before they are eighteen! To have experienced a conversion six years later than that meant much for Calvin.”

42) Cf. T. H. L. Parker, John Calvin p.192-196. Appendix 2. “Calvin’s Conversion”

43) Ganoczy, The Young Calvin, p.242. 이에 대한 반론은 Richard C. Gamble, “Book Review”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3(1988), p.265 : “I must conclude that speculation on such matters in the absence of any substantial evidence may be, while interesting, not very valuable. All agree that Calvin was converted before he composed the 1536 Institutes!”

44)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p.106.

45) Ganoczy, The Young Calvin, p.251.

46)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p.9. cf. Richard C Gamble, “Book Review,” in Calvin Theological

따라서 오늘날의 칼빈학자들은 회심의 점진적인 성격에 새로운 강조를 두고 있다. 죄인의 회개는 조금씩 이루어진다. 왜냐면,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인 타락의 짐을 여전히 질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고도 기적적인 “시작”을 오직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신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회개와 집단적인 회복은 발전적인 진보의 과정을 밟는다. 칼빈의 회심은 이해의 발전과정이라고 해야하며, 행동의 결단이 뒤따르기까지는 그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았다. 독일 뮌스터 대학의 노이저 교수도 이런 과정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온 것에 동의하고 몇 단계의 진행과정을 설정한 바 있다.⁴⁷⁾ 그러나 필자는 일반적인 회심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칼빈의 회심발전 단계를 다음 순서로 요약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단계: 1527년 혹은 1528년. 사촌 삐에르 로베르 올리베 땅과의 교제로 성경을 접함. 헬라이어 선생 볼마르에게 처음으로 성경 원어를 배울 때 교회의 잘못됨을 소개받음 (칼빈은 어찌하면 결정적으로 그의 영향을 입었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복음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초기 교육의 단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들으며 배우려는 준비가 됨. 로마 카톨릭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일부분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며, 생생한 복음에 대해 강력한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무조건적 구원등을 이해하기에는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vix tenum... puri Christianismi gustem).

Journal Vol.24(1989) p.379 : "He concludes that an early conversion (i.e., around 1527) is not probable, suggesting that it more likely took place between 1533 and 1534."

47) Neuser, "Calvin's Conversion to teachableness," pp. 68-69.

둘째 단계: 1529에서 1532년까지. 오를레앙과 부르지에서 법학 수학시간.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회의 개혁에 동조하는 휴머니스트들의 영향을 받음. 점차 복음의 참된 가르침에 흥미를 갖게 되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검증하게 되는 신앙의 발전단계. 우리는 이 단계에서 칼빈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정을 지을 수 없다. 물론 이 시기에 칼빈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저술한다. 아직까지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며, 그 시대의 정신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물론 개신교도들의 변호를 위해 쓰지도 않았다. 이 책에서 성경의 인용은 불과 세번 뿐이다.

셋째 단계: 1532년 말에서 1533 초순. 개혁사상이 무르익어 가던 파리에서 루셀의 설교에 동조함. 많은 개신교도들이 순교하는 것을 목격함.

넷째 단계: 회심. 1533년 후반에서 1543년 초. 11월 1일 친구 니콜라스 콕의 연설문 사건으로 더 이상 내면적으로만 감추어두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냄. 마침내 개혁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된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

이것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칼빈의 결정적인 시기에 대한 결론에 쉽게 도달할 것이다. 과연 이 때가 언제였을까? 앞서도 그동안의 연구를 거듭해서 언급하였지만, 이 회심은 칼빈의 법학 공부 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학설이며, 우리는 이 때를 회심을 향한 발아기로 보며, 점차 진보의 과정을

거친 후 1533년에 이르러 결정적인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⁸⁾ 그 발아기도 당시 학문의 경향으로 볼 때, 오를레앙에서 법학수업을 받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리라고 보인다. 이 시기에 신학문의 경향을 받아들이면서 개혁사상에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드러낸 것은 물론 1533년 11월 1일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 사건에서였다.

또 다른 기록의 증언을 미루어 해석해 보면, (역사연구와 그 서술에 있어서 '기록된 문서'의 신빙성에 대해 함부로 긍정하지 않고 검증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일 것이다. 랑케의 주장처럼 역사의 객관성이야말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칼빈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문서가 있기때문에, 회심의 시기는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 1533년 8월 23일에 칼빈은 노용의 대성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하는 동안, 혹은 그 전후로해서 칼빈은 마지막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용기가 없어서, 혹은 내적으로만 투쟁해 오던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비록 아버지와 큰 형이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버지를 교인 묘역에 안장하기 위해 치욕적인 타협을 하면서도, 칼빈은 여전히 연금의 혜택을 받아서 생활하며, 학업을 계속해 나오고 있었고, 노용의 성직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의 결정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48) W.Bousma, John Calvin, p.11 : "Calvin always emphasized the gradualness rather than the suddenness of conversion and the difficulty of making progress in the Christian life." W. Neuser, "Calvin's Conversion to Teachableness," p.69. W. Walker, John Calvin, p.88 : "The termination of the gradual process of Calvin's conversion by his arrival at the full Preaestant position Doumergue would place apparently in the months immediately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his commentary on Seneca, - that is, in 1532."

10월 27일 친구 다니엘에게 보낸 편지에는 휴머니스틱한 개혁자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였다. 칼빈은 루셀의 주장처럼 프랑스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개혁의지에 동조한 것이다. 단지 구교회와의 결연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 사건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파리에 무르익고 있던 새로운 경향에 따라서 순수한 성경적 교훈과 참된 교리에 대해 그의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이다.

콥사건 직후에, 칼빈은 앙굴렘에서 루이 뒤 띠에의 집에 머물렀고, 1534년 4월 5일 당대의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최고봉인 르페브르(1455-1536)를 만나게 된다. 이후에 칼빈은 사촌 로베르 올리베땅의 프랑스 성경의 서문을 쓰게 된다. 그러므로, 거의 팔순에 다다른 르페브르에 의해서 복음적인 신학의 건설과 성경적인 주석을 쓰도록 격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⁴⁹⁾

1534년 5월 4일 칼빈이 다시한번 고향교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 이 때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고향교회(La Gesine)의 연금수혜자의 자격을 철회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공식적인 연관을 끊어버린 것이다.⁵⁰⁾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회심의 표시였다. 그는 이제 타락하고, 비복음적인 교회, 즉 잘못된 종교로부터 받는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참된 신앙으로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결정적인 회심은 이 때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

49) Philip Edgcumbe Hughes, Lefevre : Pioneer of Ecclesiastical Renewal in France(Grand Rapids : Eerdmans, 1984), pp.196-197.

50) T.H.S.Parker, John Calvin p.196. 파커 교수는 권말 부록2(5페이지)에서 칼빈의 회심은 1534년에 일어난 것으로 결론 지었다. "As to the resignation of the chaplaincy in May 1534. ... therefore he was converted very shortly before this action." A.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p.73. F. Wendel, Calvin, p.40. Calvin : Geneva, and the Reformation p.9 : "His sudden conversion, we may assume, had taken place during this interval. (1533-1534)." .

던 것은 확실하다.⁵¹⁾ 따라서 1533년과 1534년 사이의 어느 때에 그의 종교개혁으로의 회심이 일어난 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이때로부터 그는 이 새로운 복음과 교리의 열렬하고도, 진지한 대표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칼빈의 회심연대의 추정은 쓰윅글리의 회심과 매우 유사한 면이 많다.⁵²⁾ 일부 학자들은 쓰윅글리의 회심연대를 1515년 혹은 1516년으로 설정하여, 심지어 루터 이전에 최초의 개혁자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521년이나 1522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⁵³⁾ 왜냐하면 쓰윅글리도 자신의 회심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쓰윅글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칼빈의 회심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의 회심은 많은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있다. 과연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몸담아 왔던 교회의 모든 전통과 방법

51) A. Lefranc, *Jeunesse de Calvin* p.201. 뤼빙겐의 K. Müller의 논문에 기초하여, 바젤 대학의 Paul Wernle 교수는 *Noch einmal die Bekehrung Calvins*, (1906) in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xxvii, pp.84-99. 발표하였다. 이 논문도 앞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Doumergue 교수의 학설(볼타르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봄)을 깨고, 칼빈이 고향의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서기로 1533년이 가장 결정적임을 주장한다. Kurt Aland,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2.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tr. by James L. Schaaf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6), p. 177 : "Then in 1534 Calvin renounced his ecclesiastical benefices a clear indication that Calvin's conversion to the Reformation is to be placed in 1533, not 1528.)"

52) W.P. Stephens,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Oxford : Clarendon Press, 1986), p. 21.

53) Ulrich Gabler, *Huldrych Zwingli : His Life and Work*, tr. by Ruth C.L. Gritsch,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6), pp. 39-60. G.R. Potter, *Zwingli*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74-96. G.W. Locher, *Die Zwinglische Reformation im Rahmen der europäischen Kirchengeschichte* (Göttingen : 1979) pp. 65-82, 115-12

을 저돌적으로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그의 표현대로, '교황의 미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⁵⁴⁾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 섭리를 수행한 인간적인 도구는 과연 어떤 역사적인 혹은 인간적인 방편들이 있었을까? 칼빈은 복음을 위한 목사로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 이 소명은 회심 이전이었을까 아니면 후일까?⁵⁵⁾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칼빈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혁신앙을 마음으로 확신하기에 그는 새로운 눈을 떠서 성경과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곧바로 성경연구에 집중하므로써 종교개

54) 다음의 학자들은 대체로 '로마카톨릭 교회'를 의미한다고 본다. H. Lecoultre, "La Conversion de Calvin," p. 24 : "칼빈의 회심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조상들의 교회를 바로잡기 보다는 개신교로 대처시키거나 싸우는 것으로 이해했다." A. Lang, "Die Bekehrung Calvins," p. 37 : "칼빈은 자신의 지난 날 어린 시절의 노력과 이념들과는 갑작스럽게 단절해버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의미와 견해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옛 교회의 오류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격을 맞았다. 그는 즉시, 오래 명상하며 생각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야만 되었다." K. Müller, "Calvins Bekehrung," pp. 321-4 : "칼빈은 고향 노동의 대성단의 공예배 기도에 마지막으로 참가하던 중에 회심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므로써 그는 로마교 예배의 잘못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F. Wendel, *Calvin*, p. 38 : "이는 칼빈이 로마교회에 철저히 불들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 개혁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동시에 로마교회와는 결별을 의미한다." P. Sprenger, *Das Ratsel um die Bekehrung Calvins*, p. 87 : "로마 교회와의 결별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부르즈부르크(Wurzburg) 신학부의 교수인 A. Ganoczy는 이런 해석들에 반대한다. 가급적이면 로마 교회를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칼빈의 신학체계를 분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The young Calvin*, p. 266 : "이들은 지나치게 칼빈의 회심을 전에 관계를 맺어오던 것과의 결별에만 강조를 두고있다. 이들은 칼빈의 교회에 대한 밀접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교회 제도로부터 이탈 동기에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 ... 만일 칼빈이 회심과 함께 교회제도로부터 결별을 했다면, 그는 분열이라는 말을 정당하게 그리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분열하려 했던 것일까?"

55) 1557년 시편주석에 의하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혁의 신학적 체계를 세우게 된다. 그러나 그의 회심의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심의 내용과 그 구조이다.

라) 회심의 내용

많은 사람들이 간파하고 있는 사실은 성경이, 그 중에서도 로마서와 시편이, 얼마나 그의 회심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는가 하는 점이다.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들어서 읽어라' (Tolle! Lege!) 는 소리를 듣고 마주친 부분은 로마서 13장 13절이었다. (Confession, 8. 12. 28-30)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일대 전향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암브로스 감독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에 이른다. 루터의 경우도 로마서 1장 17절로 인해서 확고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칼빈의 경우는 어떤 성경 본문의 결정적인 감화를 끼쳤을까? 배틀스 교수는, 철저히 칼빈의 초기저작들을 분석한 후에 로마서 1장 18절-25절이 회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여기에는 인간의 평계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종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동을 준 구절은 18절, 25절이라고 보았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56) F.L. Battles, Calculus Fidei : 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78), pp. 5-6. Institutes 1536, pp. xvi-xvii.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첫째로, 이 말씀에는 훗날 칼빈 신학의 체계적 원리가 되는 경건(Pietas)이 강조되어 있다. 칼빈의 신학의 근저에는 엄숙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스며 있으며, 그 경건의 골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다.⁵⁷⁾ 그러기에 훗날 그의 대표작 기독교강요가 "경건의 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⁵⁸⁾ 1536년 초판의 첫 서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칼빈의 이런 신앙고백을 밝힌바 있다. 초판을 쓰던 1535년은 회심후 얼마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자신이 과거에 섬겨온 옛 종교의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것이다. 1539년판 기독교강요의 1권 15장 6-8절의 부분은 고전 철학의 인간 영혼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1559년 판에와서는 훨씬 날카롭게 지적한다. 자신도 한때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의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올바르게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짓 사상가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다.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궤변철학자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확실하게 간파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위의 로마서는 1539년에 쓴 샤돌렛에게 보낸 답변서에 거짓 종교(로마 카톨릭)와 참 종교를 구별하여 어떻게 자신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과 너무나 흡사하다.⁵⁹⁾

사람들은 ... 참으로 그분을 유일하신

57) F.L. Battles, The Piety of John Calvin :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pp. 13-26.

58) F.L. Battle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Grand Rapids : Baker, 1980), p. 18.

59) Battles, Calculus Fidei, p. 6.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상상하여
경배할 많은 성자들을 받드는 것이다.

세번째로, 칼빈이 최초 주석으로 1540년에 출판한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의 해설이 새로운 믿음에 확신을 가져다 준 말씀이었음을 짐작케 한다.⁶⁰⁾ 바울 사도는 철학적인 함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지식적인 수납에 그치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에게 있어서도 로마서와 시편이 그들의 신앙의 비밀을 지닌 성작이다. 루터는 시편 주석을 맨 먼저 출판하였고, 1517년의 경험이 있는 후에 로마서 주석을 썼다. 물론 로마서가 루터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고 그를 인도하였다.⁶¹⁾ 칼빈은 로마서 주석을 맨 먼저 쓰고, 시편 주석은 마치 로마서의 연장선상에서 쓴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편 주석은 상당한 시간의 공백이 있는 후에 1555-1557년에 출판되었다. 시편 주석은 칼빈의 개인적인 신앙문제가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는 주석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윗의 모습과 비교한 곳이 너무나 많다. 물론 전반부에서 인용한 시편주석 서문이 칼빈의 자서전적인 고백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다음의 통계는 칼빈은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그의 기독교강요에 인용하였는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배틀스 교수의 판

60) *Ibid.*, p. 5.

61) 루터의 처음 성경연구는 시편에 집중되었다. 1513년에 *Dictata super Psalterium*을 출판하였다. 그의 시편 주석에는 로마서가 많이 인용되어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후에 *Lectures on Romans*(1515)을 출판하였다. 여기서는 시편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인용되었고, 시편 32편과 51편은 거듭해서 인용되었다. 이 두 책이 서로 밀접하게 루터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하다.

찰이다.⁶²⁾

	1536년판(초판)	1559년판(최종판)
로마서	162회	598회
시편	67회	580회
마태복음	185회	542회
요한복음	139회	466회
고린도 전서	133회	428회
이사야	78회	324회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대로, 기독교강요는 로마서의 확대된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빈의 회심에 영향을 준 성경은,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와 시편이다. 이 두 권의 성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칼빈은 인간의 타락의 실상을 여기서 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점검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부정하기에 이르는데 곧바로 로마서의 첫 서두를 읽으면서, 생각을 가다듬게 되어졌으리라고 보여진다.

마. 회심의 신학적 전개

우리는 앞서 칼빈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회심이 감정적으로 일어난 전향이라기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일어난 종교적 성찰이라면, 당대 프랑스의 최정상의 학자들에게 법학을 공부한 젊은 지성인으로 신앙적인 의문을 풀고자 긴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배틀스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세

62) F.L Battles, *An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Pittsburgh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6), P. 32.

가지의 문제를 직시했던 것 같다.⁶³⁾ (1) 이단과 기독교 사이의 비교, 혹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미신과 참된 종교의 비교, (2) 인간영혼의 내용과 본질 (3) 통치권에 대한 의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체계안에서 인간의 권위가 차지하는 위치 등이다.

첫 문제에 대한 고뇌의 흔적은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에 나타난다. 스토아 철학과 고대 철학의 오류,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유물 숭배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한 고찰이 영혼의 깨어있음에 대하여(Psychopannychia)를 쓰도록 만든 것 같다. 당시 또 다른 이단은 재세례파의 극단적인 신학이었는데, 칼빈은 이를 1534년에 쓴 이 글에서 명쾌하게 분석하였다. 세번째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제 4권의 끝까지 형성하는데,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문에서 간략하게 잘 나타난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이 복음적으로 전개되어갈 때 쓴 두 문서를 살펴보자. 칼빈의 최초의 신학적인 문서는 1533년 6월 4일에 나온 사촌 뻘에르 로베르 올리베망의 불어판 신약성경 서문이다.⁶⁴⁾ 프랑스어로 쓴 서문에 보면 칼빈의 회심이 신학적인 선언으로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칼빈은 아마 1534년 말이나 1535년 초에 이 서문을 썼을 것이다. 1535년 초에 이 서문을 썼을 것이다. 1535년 1월부터 이미 바젤에 와 있었다.

63) Battles, "Introduction," in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Grand Rapids : Eerdmans, 1986), p. xxii.

64) 칼빈은 두 개의 서문을 부탁받았다. 하나는 라틴어이고, 두번째 것은 프랑스어였다. 프랑스어로 된 서문은 15페이지에 이른다. Calvin's Commentaries, ed. and tr. by Joseph Haroutuniar and Louise Pettibone Smith,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I (Philadelphia : Westminster, 1968) pp. 58-73. 라틴어로 된 서문은 4페이지로 된 짧은 글이다. "Appendix IV, John Calvin's Latin Preface to Olivetan's French Bible(1535)"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Grand Rapids : Eerdmans, 1986) pp. 373-377.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며, 진행되고 그리고 끝난다.

그분이 바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아삭이시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내 던져지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아들이시다.

그분은 조심스런 목자 야곱이시다.

자신을 의지하는 양떼들을

놀라운 관심을 갖고 돌아보신다.

그분은 친절하고 자애로운 형제 요셉이다.

자신의 영광 중에서도

비참하고 비천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들을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이다.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희생을 바치셨다.

그분은 탁월한 법의 입안자인 모세이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판에 그분의 율법을 아로새기신다.

그분은 신실한 지도자요 지휘관인 여호수아이다.

우리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도다.

그분은 존귀한 승리의 왕 다윗이다.

모든 반란의 세력을

그분의 손에 굴복시키도다.

그분은 위대하고 성공적인 왕 솔로몬이다.

평화와 번영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용맹스럽고 힘센 삼손이다.

모든 대적들을 죽음으로 완전히 무찌르셨다.

여기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칼빈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들의 철학 중에서 지혜를 찾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적으로 인도하심을 확실히 붙잡았다. 인간의 지혜에 영광을 돌리는 철학으로는 깨닫지 못하던 인간 타락의 상태와 약함을 발견한 것이다. 주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갖가지 유형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되고 있다. “우리들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희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분을 우리가 알도록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다.”

이 놀라운 ‘복음예의 부름’을 자세히 읽어보면, 칼빈이 개인적인 체험들을 전체 구원역사의 진행에 투영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짧은 서문은 칼빈의 회심에 대한 첫번째의 신학적인 반영이요 정립이다. 그의 믿음은 구원역사(salvation-history)의 믿음이다. 이는 좁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성경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수용되어졌다. 칼빈의 신학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보면, 구원역사의 개요인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체험해온 믿음과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 서문에서 교차시키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 서문을 국왕들, 군주들, 그리고 감독들과 목사들에게 복음의 바른 설교와 교회의 건전성을 파악해보라고 촉구하면서 끝맺고 있다.

그리하여, 참된 경건의 지식과 맛을

약간 본 후에,

나는 갑자기 그 진보를 향해

커다란 욕망을 불붙히게 되어졌다.

비록 내가 다른 공부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까닭에,

다소 진전이 느려졌지만[위에 칼빈의 시편주석 서문을 볼 것].

두번째 칼빈의 회심의 체험이 신학적으로 증언된 부분은 1535년 전반기에 저술한 기독교강요의 첫 부분이다. 칼빈의 좀더 발전된 신학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흔적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중적인 지식(duplex cognitio Dei)이다. 여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타락한 죄인 사이의 서로 양립되는 심연이 묘사되어있다. 칼빈은 이것을 회심을 통하여 느꼈고, 기독교강요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에서 집약된 형태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⁶⁵⁾

무엇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이시며, 의, 선, 자비, 진리, 능력, 그리고 생명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만이 올바른 재판장이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관한 지식인가?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형상에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선한 의지도 없으며, 영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

인간들의 혼란스런 절망을 막기 위해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양심이라는 불문법과 계명이라는 성문법이다. 우

65) 칼빈의 신학의 핵심구조인 ‘이중적 지식’에 대해서는 기독교강요의 첫 부분을 볼 것. “모든 거룩한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둘로 구성되어 있다.” 배틀스 교수는 로마서 1장 21절이 이 첫 문장의 성경적 배경이라고 말한다. “The kernel of Calvin’s faith” in *The Piety of John Calvin*, p. 43.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테마가 되어왔다. B. 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Calvin and Augustine, ed. by Samuel G. Craig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pp. 29-130. T. H. L. 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 A Study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59), E. A. Dowey, Jr.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ch. 2.

리가 원래 창조될 때의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증거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여전히 우리가 자기 자신외에는 볼 줄 모르는 소경과 같으므로, 어떻게 온전한 정의를 유지하는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쓰여진 율법을 준비시켜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인고로, 여전히 인간은 영벌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고 그의 무한한 자비로 인하여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비록 절망의 늪에서 헤멜지라도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우리가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모든 은사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은사들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붙잡아야 한다. 그 안에 참된 생명력있는 종교가 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 신학적인 체계로 저술되어진 칼빈의 참신한 사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서문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칼빈의 신앙이 회심의 갈등을 거치는 동안에 체험된 결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삶이 주제를 이루는 그의 깊은 신앙의 현장을 보게되는 것이다. 장차 후에 종교개혁을 위해 전개한 모든 그의 놀라운 활동의 근거에는, 그리고 그의 설교와, 성경주석과, 계속된 신학 논쟁의 핵심은 회심의 체험에서 나오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였다.

結 論

칼빈이 한 사람의 휴머니스트로서, 또 권위주의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장학금을 받아오던 신분으로부터 종교개혁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 자신 한 사람만의 회심이라기 보다는 프랑

스의 종교개혁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니콜라스 콕의 연설문 소동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당시 개혁운동의 핵심부에 연류되었던 칼빈은 서서히 자신의 내면적 투쟁을 거쳐서 참된 종교로 돌아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세운 체계적인 회심의 이유들을 신학적으로 수렴하여 종교개혁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칼빈의 회심은 감정에 잠겨서 일어났다거나 즉흥적인 흥분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옛것으로 돌아가버리는 불명확한 회심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글 속에 담긴 회심의 본질을 주의깊이 살펴보았다. 그의 회심의 단적인 표현인 “갑작스런 회심”은 과거로부터 맹목적으로 단절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자나간 날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발견하는 가운데 주어졌다. 그는 옛날의 체제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선생들’에게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회심은 내적인 사상과 토론의 발전과정의 정점에서 주어진 사건이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칼빈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회개하는 순간, 이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e intervention)이 있으므로해서 그는 이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회심에서부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었다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었다. 물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홀연히, 칼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5세의 청년이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뜻 가운데 변화된 세계관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겸손하게 그는 자신을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의 생애의 표어처럼 사용된 구절에서 우리는 회심한 이후의 각오와 태도를 발견한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

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cor meun tibi offero
domine propte et sincere)

성경에 의한 복음전도의 능력

Arthur P. Johnston

<President of Tyndale Theological Seminary>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전도의 도구로서의 성경의 사용에 관한 나의 평생의 연구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나의 큰 특권으로 생각한다.

빌리 그레함 박사 설교사역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그의 성경 사용이다. 성경은 그가 강단에서 가지는 유일한 책이다. 그는 그의 복음전도 메시지에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그는 “성경은 말씀합니다”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예수님을 인용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계시임을 인식해 왔다. 성경은 수 천년전에 기록된 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오늘 날에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수세기를 걸쳐 성령에 의해 영감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과 생명력을 얻었다.

복음전도는 기도를 필요로 한다. 성경은 우리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왔다. 복음전도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돕는자’와 ‘위로자’로